

“공존과 평화의 시대 만들자”

종교화합 ‘새 바람’

교단 - 단체별 연대 활동 활발

올 2001년은 종교화합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각 교단과 개별단체들은 물론 사이버상에서의 화합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인들은 연대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지난 2000년의 성과를 발판삼아 새로운 세기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불교의 재가연대는 다른 종교단체 실무자 및 대표자 등과 참여불교 네트워크를 구성, 종교사민영양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인들은 연대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지난 2000년의 성과를 발판삼아 새로운 세기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불교의 재가연대는 다른 종교단체 실무자 및 대표자 등과 참여불교 네트워크를 구성, 종교사민영양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인들은 연대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지난 2000년의 성과를 발판삼아 새로운 세기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환경·인권·복지·절약캠페인·합동성지순례·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상호 축하 등 지난해의 종교화합과 연대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희망과 화해의 정신을 심어주었다. 사진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의 공연연습 모습.

천주교 역시 교구 및 개별단체 차원에서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교구 홍보실장 정용모 신부는 “연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구차원이든 개별단체 차원이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불교는 아예 교단차원에서 다른 종교와의 연대강화를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앙총부 문화사화부 최남호 교무는 “올해부터는 종교지도자협의회나 민족종교협의회 등 각종 연합단체와 개별단체 간의 접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간의 화합은 교단과 단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활발하다. 믿음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 (www.believers.co.kr), 나의 삶, 나의 종교 (www.myreligion.com) '종교 화합모임' (user.chollian.net/~relisone), 가톨릭 자료실의 '종교간의 대화' (user.chollian.net/~jamsa) 등 인터넷 상의 종교화합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들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종교화합 목적의 사이트 외에 홈페이지에 종교간의 대화방을 설치하는 단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실천승가회 이상호 차장은 “종교간의 화합은 연대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알기 위한 체평주의의 이벤트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어느 해보다 이해폭과 연대감을 넓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진 계층 ‘매장’ 선호

주요병원 화장장 조사

“있는 사람은 매장을, 없는 사람은 화장장 선호한다” 서울 주요병원의 장례식장 화장장을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 있다. 한마디로 가진 계층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재력가나 권력층, 고위공무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주요 병원 장례식장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장장을 보면 서울대병원 35.3%, 세브란스병원 40.4%, 강남성모병원 30.8%, 삼성서울병원 20.8%, 서울중앙병원 34.6%, 이대목동병원 35.4%로 서울 시내 일반인 화장장 5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수치는 서울 시내 7개 종합병원의 같은 기간 평균 화장장 46.2%에 도 훨씬 밑돌고 있다.

구립 25일 서울시는 최근 2개월간 화장·납골시설을 견학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5%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산시도 20세 이상 부산시민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2%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관계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로 매장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조상 묘지리를 잘 살펴 후손이 잘 된다는 기독교 보충위원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가진 계층”이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국내 최대 노인복지센터 건립

연꽃마을, 안성에 1만평규모 3월 착공

경기도 안성에 국내 최고의 시설과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될 불교종합노인복지센터가 세워진다.

연꽃마을이시장 각형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에 1만여평 규모의 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10년 장기사업으로 잠정 결정하고, 1차로 올 3월 공사에 착공해 연내에 6백평 규모의 치매요양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70여명을 수용하게 될 치매

요양시설에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도 포함되며, 시설은 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유럽풍의 전원주택 형태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다양한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는 등 전문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보호노인의 정신수양을 위한 법당을 건립해 복지시설과 종교간의 조화를 꾀하고, 노인복지를 주도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보건복지 전문대학 및 연수원 등을 설립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연꽃마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4백평 규모의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건립비용을 충당하며, 나머지 2백평의 건립비용은 연꽃마을이 자체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꽃마을은 후원자를 발굴·모집하는 등의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현중 사무국장은 “10년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보다 훨씬 빨리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성 종합노인복지센터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유엔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한국등 77국에 위원회 구성

올해는 유엔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유엔은 지난해 11월28일 뉴욕 본부에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독일 멕시코 등 77개국은 국가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가졌다.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블린터어 21’이 99년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4%로, 50%를 넘나드는 미국이나 30%대의 유럽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자원봉사시간도 주당 2.2시간으로 미국의 3.5시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95년 이전 5% 이하에 머물렀던 봉사참여율이 몇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교계 역시 자원봉사 참여율이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김애련 사무차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자원봉사자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불자들이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회당탄생 ‘100주년’ 사업

주제 - 슬로건 확정

진각종통리원장 최호은 구립 12일 총인원 소회의실에서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를 개최하고 기념사업 주제를 참여, 화합, 공양으로 정하고 “즐거움 신행, 하나되는 신행, 함께 하는 신행”의 슬로건도 아울러 선정했다.

진각종은 2002년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난 97년 전개한 창종 50주년 때의 제2의 창종 정신을 더욱 구체화해 21세기적 회당정신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해 종단과 불교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달중 기념사업 세부안을 마련, 확정발표한다. 이경숙 기자



동전으로 만든 다보탑

서울 방화동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는 진각근제(60)는 6년전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자 이를 기념하고, 10원의 가치를 모르는 세태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보탑을 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소요된 동전만도 4천여개. 10원짜리 동전 앞면의 그림이 다보탑이라 다보탑을 쌓기로 했다는 진씨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탑을 완성해 월드컵조직위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불자 장기기증 증가

99년 비해 2.4배 7010건

생명나눔실천회 집계

지난해 불자들의 장기기증이 99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부터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여온 생명나눔실천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서약 건수는 모두 7,010건으로 99년 2,961건과 비교해 2.4배나 증가했다. 장기기증 참여인원도 99년 1,176명에서 2000년 2,966건으로 2.5배 증가해 기증건수와 기증자가 거의 같은 비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후각각기증이 988건

에서 2,386건으로, 뇌사시 장기기증은 995건에서 2,411건으로, 신장기증은 142건에서 302건으로, 골수기증은 202건에서 457건으로, 사후 시신기증은 634건에서 1,454건으로 늘었다. 특히 생존시 이식이 필요한 신장과 골수의 기증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기증서약을 했다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불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수동적 참여에서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불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최근 포항시 모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신임 주지 임명 반대 촉구대회를 열고 종단에 서명부와 탄원서를 보냈다. 신도들의 신임주지 반대 움직임은 간혹 벌어지는 해프닝이지만, 이번 일은 ‘스님의 정치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지방 일간지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내용인즉, 사찰 신도들은 “신임주지로 내정된 모 스님이 7년전까지 이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등 사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침신한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당사자인 신임주지 스님은 “이번 사태는 1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현주지 스님이 임기연장을 위해 일부 신도를 사주한 결과”라며, 반대 서명 등에 포항과 관계없는 부산 및 울산지역 사람들이 포함된 게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임주지 스님의 주장대로 신도

들의 임명 반대 요구는 주지 임명을 둘러싼 단순한 내홍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스님의 경력 이신도들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곱씹어 볼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늘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가 권력을 지향하는 반면 종교는 출

세간적인 이념과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가야할正道를 안내해 주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종교와 정치는 상호 보완관계를 이뤄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님들은 파사현정의 자세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지언정,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왜 출가를 했는지, 출가본래의 목적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목탁소리 스님과 정치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 / 동시동역사 손언국 · 아보타 마스터 / 원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 만을 생각합니다.

謹賀新年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 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 212-0903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법종